

# 천년 가족불심 우담바라 피웠네

이준엽 기자

29대째 신행을 펼치는 현장이 있다. 부처님과의 인연뿐 아니라 인연을 이어주는 현장까지 대를 이었다. 그것도 가히 1천년 가까이 부처님을 따르는 한가족의 현장이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박상일(法齊 55)씨 가족. 이들은 해마다 정월 초순이면 서울 구과발 흥국사를 찾아 정초기도를 한다. 그때그때마다 형편에 맞는 공양물을 정성껏 봉헌에 올리고서 '올 한해도 부처님의 가피덕으로 가정의 평안을 기원'해 왔다. 박씨의 할머니도 그러하셨고 할머니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 고려초부터 새해기도... "어길수 없는 가풍"

## 29대째 흥국사 신도 박상일 거사



◆ 박상일씨 가족은 북한산 흥국사를 원찰로 정해 29대째 정초기도를 해오고 있어 스님들 따라 사찰을 옮기거나 이곳저곳 영험하다는 사찰로 옮겨다니는 칠세 신도에 경중을 주고 있다.

### 발굴 취재

그러했다. 쌀을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서 흥국사만을 찾았다. 박씨 일가가 정초에 꼭 흥국사로 가야만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집안대로 내려오는 불문율이다. '기도하라 그리고 조상대대로 다니는 절에 다녀라'. 비록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을 지켜라 식의 가훈은 없어도 정초에 흥국사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저서는 안될 집안의 가풍이다. 이것을 29대째.

말양 박씨가 서오릉부근에 자리를 잡은 때는 고려 초다. 지금은 서울 갈현동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으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고양 땅이었다. 박씨의 선조가 이곳에 정착한 정확한 연대와 사연은 찾을수 없으나 대대로 땅을 일구며

살아왔다. 단지 이곳에 정착하면서부터 정초기도를 했다는 말이 족보와 함께 집안에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다. 당시에는 인근에 절이 많지 않았다. 멀리 할매산(오늘의 한미산)에 암자가 하나 있었을 뿐이다. 원효스님이 북한산에서 정진하던 중 석조약사여래불이 서기를 비추기에 창건한 흥서암(興西庵)을 흥국사의 옛 이름이던 절이다.

"왜 해마다 절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지 의심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조상대대로 해왔으면서 당연시 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증조할아버지는 직접 기도를 하시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대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부가 아들과 함께 사찰을 찾고 있습니다." 조상 가운데 증류를 좋아하는 할아버지 한분이 계셨다.

종류에 밀려 흥국사에서의 정초기도가 소멸됐었다. 그래서였을까, 당시 집안은 파산 직전이었다. 다시금 정초기도가 시작되었다. 집안도 다시 일어났다. 그후 지금까지 정초기도를 이어오면서 박씨 가문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박씨도 5세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흥국사를 찾았다. 절까지 30리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야 했다. 절

입구에 닿으면 잠시 여장을 풀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었다. 사시마지에 맞춰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했다. 두어시간 기도가 끝나면 또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해 뜨기 전에 나온 집에는 해질 무렵에야 돌아왔다. 비록 일년에 한번있는 사이건만 이를 위한 준비는 3백65일 전부터였다. 이제 고통이 편리해지면서 박씨가족의 생활태도도 바뀌었다. 한달에 한번은 흥국사 약사전을 찾는다. 신앙의 형태도 변화가 왔다. 3년전 박씨는, 대원 불교대학을 졸업했다. 지난해에는 흥국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신교양대학을 수료했다.

육바라일이 무엇이고,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는만큼 행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흥국사주지 흥선스님은 박씨가족의 신행에 대해 "오늘의 신행생활에 많은 귀감이 된다"고 말한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신행을 논리보다는 체험으로 접하는 생활불교는 물론 가족 모두가 원장을 정해 대대로 신행생활을 펼치는 것은 보기드문 일이다"며 "스님을 따라 원장을 옮기거나 어느 기도사찰이 영험하다고 하면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칠세신도에 경중을 준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사화에 환원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로서의 할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1남4녀의 자녀 가운데 아들이 흥국사 정초기도에 동참하는 것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박씨일가의 신행은 맥을 잇고 있다.



### 송석구 <동국대 부총장>



신행은 극히 사적이며 비밀스러운 것이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저 마음속 심연에 간직한 완성의 대상이다. 그러한 것을 천기누설 하듯이 공개한다는 것은 원지 오랫동안 간직한 사람의 연가를 밖으로 노출하는 듯 하여 성를 내키지 않는다. 이미 말이나 글로 밖으로 드러난 것은 죽은 것이다. 그곳에는 선악, 시비가 붙어서 내생의 무한 가능성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것은 나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길잡이 역할이 될까 싶어서이다.

사실 나는 부처님을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아니다. 젊은날 가장 왕성한 이성적 사고와 격렬한 열정이 있었고 있을 때 불교를 접했다. 물론 한국인의 가정에서 웬만한 사람이 라면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먼산의 사찰을 따라 간 경험은 누구나 공유할 시절이 있다. 나도 그러한 어린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불교대학 철학과 불교철학을 공부할 입학한 것은 50년대 중반의 실존주의 영향이 크다. 사촌이 문학과 형이상학에 깊이 심취해 있던 나는 실존의 허무와 불교의 무상에 젖어 있었다. 좌절과 난파의 젊은 고독은 불교의 무상이 없었다면 살아 남을 수 없었다. 나의 불교는

버린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 증오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중요해도 그 일 자체가 풀리지 않았다. 내가 20년간 믿고 의지 했던 불교교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해결 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불교법회를 들었다. 그것은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고 모든 부처님을 칭찬하라. 그리고 그 모든 부처님은 바로 우리 주변 나를 에워 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나의 아내, 나의 친구, 가족,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파멸로 이끈 그들이 곧 부처이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을 소멸 시켜주는 폭진하신 부처님이

이다. 이 말씀이 곧 나의 깨달음을 인도해 주었다. 그러기 위해 참선도 하는 것이고 열불도 하는 것이고 부처님께 절도 하는 것이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한생각 두명의 소치이다. 그것이 곧 번뇌망상이다. 번뇌망상은 진리가 아니다. 일어난 생각은 죄업이고 죽은 것이다. 이때 부터 나는 직접



## 백팔배 20년... "아직도 자책이"

이러한 인간조건의 자기불안 극복으로 크게 다가왔다. 나에게 많은 도반이 있었다. 60년대 초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상설법회가 적었을 때 경전 강의가 있다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녔다. 굳이 있으면서 서용스님의 선, 탄허스님의 화엄경, 보조법어, 관음스님의 금강경요해 성철스님의 법문과 3천배 등이 나의 지적 욕구와 믿음을 충족시켜 주었다. 그러나 나는 이론불교에 머물러 있을 뿐 불교의 수행이 몸에 배이지 않았다. 절에 가서 부처님을 뵈고 오체투지 한다는 것이 어색했고, 열불을 한다는 것도 미심쩍었다.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지 않은가? 내면에는 불교를 잘 아는 척 했다. 부처님께 법보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치로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없는 돈을 보시하고 더구나 축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만했다. 그러면서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새벽에 일어나 읽었고 적어도 1시간 이상 좌선을 하고 살았다.

70년대 나는 나의 인생의 큰 기로에 놓였다. 나의 삶의 기반이 현실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다. 나는 나를 그러한 생의 미로로 던져 폭락을 들고 고성영봉을 하였고 매일 아침 108항회를 했다. 금년이 꼭 20년째가 된다. 한생각 일어나기 전의 나의 진면목,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예배, 공경하고 모든 사람을 칭찬 하는것, 그것이 일어난 생각을 부처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생상이 항상 여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생각과정에 있는 것이다. 번뇌가 곧 보리라는 이치는 이러한 데 있다. 결코 깨달음은 관념적이지 않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그들을 인정할 때 깨달음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 것이다. 그 이후부터 나는 절에 가서도 예배가 쉬웠으며 열불도 같음이 없었다. 법보시와 함께 재보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축원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오늘날 나는 새벽 6시에 화계사 법당에 올라 108배를 하고 그곳에 있는 지장전, 나한전, 삼성각에 올라 부처님 한분한분께 절을 하고 나오면서 먼저 만나는 살아있는 부처님께도 인사를 한다. 결코 이같은 자량이 아니다. 앞으로 이 글로 인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책임을 주는 글이다. 너무 마하안아바리미!

## 불심 꽃피는 내집같은 회사

### "웃는얼굴·부드러운 말" 실천... 이웃돕기 행사도

경북 안동에 소재한 (주)풍산금속 불자회(회장 임석년)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표정과 부드러운 사람스러운 말씨를 생활화 하자'는 행동강령을 세워 직장 사화를 선도해 가고 있다. 지역의 직장불교회로서는 보기 드물게 1백60여명이라는 대가족이 활동하고 있는 풍산불자회는 "웃는 얼굴, 부드러운 말"의 실천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었다는 평이다. 1일 3교대 근무조건 속에 자칫 따분하게 여겨질 회사를 항상 웃음넘치고 희망찬 일터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풍산불자회는 4년전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직

### 밤방 풍산금속 불자회

장 동료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참담했다. 이후 매일 아침 경전읽기를 통해 신앙심을 고취했다. 어느정도 신심이 싹트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회사의 가정과의 거리를 좁혔다. 매년 2회씩 사찰순례와 스님님 초청법회를 개최하여 가족과 동료와 함께 호응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회원들은 수계법회로 불자의 자긍심을 높였고 원각사에서 열리는



◆1백6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풍산금속 불자회. 여기서 탄탄한 신행단체로 성장해 지역포교에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안강유일의 포교당인 원각사 중앙불사에 풍산불자회가 앞장서고 있어 근시일내에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이처럼 풍산불자회가 회사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앞장서자 회사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가정과 직장, 사회가 하나되는 불국토 건설을 위해 전회원이 정진하고 있다"고 말하는 임석년 회장은 "정기법회를 활성화 시켜 온가족이 참여하는 직장 신행단체로 발돋움 하겠다"고 밝혔다. (인강=김준근 기자)

# 우리 불교의 소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찰의 음향설비, 이제는 전문업체와 상의해주시요

#### 불교의 현대화와 (주)대웅정보

이미 사찰 전산화를 위해 BBS불교방송과 함께 컴퓨터 전산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옥외전광판(LED)을 통한불교방송의 문자뉴스방송사업을 준비중에 있는 저희 (주)대웅정보에서는 사찰의 구조와 기능에 알맞은 음향기기를 기획·설비함으로써 소리를 통한 대중교회사업에도 일조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새로이 음향사업부를 신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사원건축의 특수성과 음향설비

사찰의 음향기기 설비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해보아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조건물이 대부분인 법당, 일반 건축물에 비해 높은 천정, 소리의 울림이 예민한 마루바닥, 한지를 바른 문짝, 일반적으로 산을 등진 채 계곡을 끼고 있어 목 띄어 있는 입지조건 등등.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건물로 지어진 도심지의 포교당이라 할지라도 스님의 독경이나 법문말씀이 보다 경건하고 그윽한 분위기 속에서 신도님들의 신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음향설비는 함부로 할 것이 못됩니다. 교회나 성당을 새로 지을 때 음향설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 사찰의 음향설비 대응과 함께

저희 (주)대웅정보는 오직 우리 불교의 현대화, 과학화, 대중화만을 위해 서 태어났습니다. 각개 사찰의 여건에 맞추어 최적의 장비와 비용으로 최상의 효과를 얻어드리기 위하여 기계이 스님들의 상담에 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찰의 신규 음향설비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사항까지도 이젠 저희 (주)대웅정보와 상의해주시요.

(주)대웅정보는 사찰의 음향설비 전반에 관한 기획 및 보완안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우리 불교의 전통적인 소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부터라도 서둘러 취재 기획하여야 할 원로대덕스님들의 법문말씀, 일반 경이로는 원음 그대로 담아내기 어려운 각종 불교의식의 채록, 보다 깊은 간담으로 일반법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예제 등 소리에 관한 저희 (주)대웅정보와 상의해주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80 효정빌딩 3F  
TEL : 579-3500, 579-3656-8

전화문의 주시는 사찰이나 단체에는 보다 상세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이미 설치된 음향기기에 대한 불만사항도 주저없이 저희 (주)대웅정보와 상의해주시요.

불교의 현대화 대응이 함께 합니다.